• 1　언어 영역 •

정 답

1	③	2	⑤	3	④	4	⑤	5	③
6	②	7	③	8	④	9	④	10	⑤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①
21	⑤	22	③	23	②	24	③	25	④
26	③	27	②	28	①	29	④	30	①
31	①	32	⑤	33	③	34	①	35	①
36	⑤	37	③	38	③	39	⑤	40	②
41	①	42	④	43	①	44	②	45	④
46	②	47	③	48	③	49	④	50	②
51	③	52	⑤	53	②	54	③	55	①
56	④	57	⑤	58	④	59	④	60	②

해 설

[1]　여러분은 거문고에 대한 수업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문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거문고의 몸통은 오동나무로 만든 둥근 앞판과 밤나무로 만든 평평한 뒤판을 맞붙인 것으로, 그 자체가 울림통의 역할을 합니다. 오동나무 앞판 위에 명주실로 꼬아 만든 줄이 6개 있지요. 연주자의 몸 쪽으로부터 세 번째 줄인 대현은 가장 굵어서 낮은 소리를 낼 때 쓰고, 두 번째 줄인 유현은 가장 가늘어서 높은 소리를 낼 때 씁니다.

이제 줄을 받치고 있는 것들을 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에 볼록하게 솟은 것 세 개가 보이지요? 다 찾았나요? 이것은 기러기의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족(雁足)이라고 합니다. 안족은 줄을 따라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줄의 소리를 고를 때 씁니다. 안족 옆에 16개의 괘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제1괘, 제2괘라고 부릅니다. 이 괘를 왼손으로 눌러주면 소리의 높낮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제1괘를 눌러주면 높은 소리가 나고, 제16괘 부분을 눌러주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거문고를 연주할 때는 '술대'라고 부르는 대나무 채를 사용합니다. 술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볼펜 크기만 한데요, 연주자는 이 술대를 오른손에 끼고 줄을 쳐서 연주합니다.

1. [출제의도] 정보 내용의 확인

수업 내용은 거문고의 각 부분의 기능과 명칭에 관한 것이다. 연주자로부터 가장 먼 부분에 있는 것은 '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줄을 당기는 데 쓰는 청납색 끈을 엮어서 묶어 놓은 것이다. 그림을 보면 연주자는 오른손에 작은 막대기처럼 생긴 줄대를 쥐고 왼손으로 괘를 누르면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부들 가까운 곳에 기러기발처럼 생긴 것은 안족이다.

[2] 이번에는 '서당'에 대한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시대의 학교' 하면 우리는 회초리를 든 엄한 훈장님과 낭랑한 목소리로 글귀를 외는 학동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름 아닌 서당의 모습이지요. 서당은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고유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서 예로부터 민중의 교육을 담당해왔습니다. 성균관과 향교가 관학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었다면, 서당은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단계의 교육기관으로,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둔 양반과 평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학식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았고 직업적인 유랑 지식인에서부터 마을의 유식한 촌로까지 다양했으며, 훈장에 대한 대우는 양식으로 쓸 쌀과 땔나무, 의복 등을 제공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은 보통 칠팔 세에 입학하여 십오륙 세에 서당의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었는데요, 초등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중심이었으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20대 중반의 만학도들도 많았습니다.

서당에서는 강독, 제술, 습자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자문으로 시작하는 '강독'은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서당의 대표적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제술'은 현재의 작문 과목에 해당하며, '습자'는 한자 쓰기에 해당합니다. 서당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식 교육에 있었는데요, 학생의 개인차와 능력에 맞게 교재의 범위를 정해 놓고 능력에 따른 완전학습을 지향해 문자에 담긴 이치를 깨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교과 내용을 달리하고, 나이에 합당한 놀이학습법도 시행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과정을 보면 서당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아도 매우 훌륭한 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을 통해 서당교육은 맞춤식 교육이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재 범위와 방법을 달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3] 이번에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경질적으로)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띵동

엄마: 누구세요.

아들: (퉁명스럽게) 철수예요. (문 여는 소리) (가방 던지는 소리)

엄마: 아니, 애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친구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했어요.

엄마: 사소한 일, 그게 뭔데? 한번 얘기해 봐.

아들: 아무 일 아니래도요. 엄마는 참견하지 마세요.

엄마: (감정을 억누르며) 모자지간에 못 할 말이 어디 있어. 엄마는 항상 네 편이잖아.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아들: 어휴, 엄마 성화에 못 살겠어. 글쎄 말이에요. 도현이 있잖아요.

엄마: 그래, 너랑 초등학교 때부터 죽고 못 사는 사이잖아.

아들: 그래서 화가 더 난다고요. 오늘 낮에 체육 시간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더워 죽겠더라구요. 그래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도현이한테 '도현아! 창문 열고, 선풍기 좀 틀어.' 그랬더니, 도현이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바탕 말다툼을 했어요.

엄마: 혹시 도현이가 너하고 다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니?

아들: 있긴 있었지요. 도현이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늦게 나와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엄마: 아휴, 이 녀석아. 네가 잘못했네. 엄마도 봐라. 하루 종일 집안일로 시달렸는데, 아빠가 들어오시자마자 '밥 차려, 배고파.' 그러면 약이 올라. '당신 오늘 힘들었지. 오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시장기가 도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남도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의 뜻도 전달할 수 있잖아. 내일 학교에 가서 사과하는 게 좋겠구나.

3.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대화에서 아들의 화법이 갖는 문제점은 엄마의 마지막 말에 드러난다. 엄마의 핵심 생각은, 대화에 있어서 발화자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 점을 아들의 화법에 적용해 보면 상대방(도현이)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요구 사항만을 직접적으로 말한 아들의 말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답풀이] ① 친한 관계임은 드러나나 예의 없게 말한 점은 엄마가 문제삼는 화법과는 관계가 없다. ②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드러나나 엄마가 문제삼는 화법과는 관계가 없다.

[4] 이번에는 방송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남): 최근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배아줄기세포가 뭡니까?

기자(여): 쉽게 말해 모체 자궁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생긴 아주 작은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처음엔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하여 배아줄기세포를 형성합니다. 이 배아줄기세포가 자라면서 눈과 팔 등의 여러 신체기관으로 발달합니다.

앵커(남): 그럼, 이 배아줄기세포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겠습니까?

기자(여): 아직은 연구 단계라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될지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당뇨병이나 척수마비와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얻고, 더 나아가 심장과 같은 이식용 장기를 얻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남):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자(여):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배아에서 배아줄기세포를 뽑아내면 배아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남): 그럼 배아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얘긴가요?

기자(여):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수정 후 2개월까지를 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앵커(남): 그렇다면 배아줄기세포 이용은 생명 윤리 차원에서 논란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기자(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앵커(남): 그렇군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4. [ ] 정보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기자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제는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을 뿐, 이 연구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⑤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 기자의 첫 번째 대화를, ②는 기자의 세 번째 대화를, ③은 기자의 두 번째 대화를, ④는 기자의 네 번째 대화를 듣고 반응한 것으로써 적절하다.

[5 – 6] 이번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방송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5번은 물음과 답지까지 다 듣고 푸는 문제이니, 5번 문제를 푼 뒤에 6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 단체 대표 두 분을 모시고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남자): 서울 일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 37% 감소했으며, 특히 강도와 절도 사건은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감시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에 대한 시민 단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 단체 대표(여자): 정부 관계자의 의견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의 범죄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을 가지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인근 다른 지역의 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범죄의 지능화를 부추길 뿐이며,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인데, 이 같은 권리가 범죄 예방을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이제 논점이 자연스럽게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법률적인 입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부 관계자(남자): 시민 단체 대표께서는 인권을 강조하셨는데, 개인의 초상권도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침해란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생활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골목길이 과연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단체 대표(여자): 설사 그러한 이유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감시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어떻게 보관하며, 그 내용을 볼 권한을 누구에게까지 줄 것인지 등에 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촬영 자료가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번 문제와 관련된 사회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토론이 점점 열기를 띠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스튜디오에 접수된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사랑님은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생각은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파란바다님은 '범죄 예방보다 인권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른나무님은 '감시카메라를 특정지역에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역차별이 아닐까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셨고요. 가을바람님은 '자기도 모르게 감시카메라에 촬영당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으며 하얀 안개님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약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5. [출제의도] 토론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부 관계자와 시민 단체 대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설치 운영했던 감시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은 토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며, 실제로 두 사람이 토론하는 내용은 감시카메라 설치와 운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란 점에서 지역차별과 관련된 글을 남긴 푸른나무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6.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화자의 말하기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시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여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중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시민단체 대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중심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중시한다.

7.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보고 글쓰기 주제를 연상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그림으로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함을 연상할 수 있다. 뒤를 돌아다 보며 승객을 보살피는 기관사의 모습과 객차에 타고 있는 수혜 대상자들의 모습에서 ③'수혜자를 고루 배려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8. [출제의도] 수집된 글감을 분류하여 설정된 항목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은 '의식 개선을 통한 해결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9. [출제의도] 개요에 맞게 글감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메모는 개요라 할 수 있다. 개요의 내용은 학생들이 편향된 종류의 책을 읽는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다. ④에서 '비현실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것'은 편중된 독서의 결과이며 원인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자료1>에서는 특정 종류의 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자료3>에서는 '편향된 독서를 하면 한 가지 이념에 고착되거나 비현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③ <자료2>는 학교에서 도서 선택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⑤ <자료2>는 교사의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료3>에는 학교 차원에서 독서지도전담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글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내용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제목의 내용과 어울리고, '울며 겨자 먹기'라는 관용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짜증이 났다고 말하는 점에서 '갑'의 말을 일부 긍정한 것이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지닌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을'을 비판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내용이 제목에 어울리기는 하지만, '갑'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을'의 태도를 비판한 것도 아니며,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② 내용이 제목에 어울리지 않고, '갑'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을'의 태도를 비판한 것도 아니며,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③ 내용이 제목에 어울리지 않고, '갑'의 말을 일부 긍정하였다. '맥이 풀리다'라는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을'의 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④ 내용이 제목에 어울리고, '갑'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을'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관용적 표현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단위어 '채'는 '집 한 채'나 '이불 한 채'등 집이나 이불을 세는 단위이며, '올'은 '올이 가늘다/올이 굵다/올이 나가다/올을 엮다' 등에서 보듯이 '실이나 줄의 가닥'을 의미하거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이나 줄의 가닥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여기에서 머리카락은 '줄의 가닥'의 의미에 해당한다.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의 의미이며, '뜨개질할 때 눈마다 생겨나는 매듭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오답풀이] '장'은 '종이 한 장/기와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올렸다.'에서 보듯이 '종이나 유리 따위의 얇고 넓적한 물건을 세는 단위'로 쓰이며. '필'은 '예물 단자를 적어 보면 황 모시 열 필'에서 보듯, '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피륙을 세는 단위'로 쓰인다. '땀'은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하다.'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실을 꿴 바늘로 한 번 뜨다.'의 의미로 쓰인다. '모'는 '두부 한 모'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부나 묵 따위를 세는 단위'로 쓰인다.

12.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적절하게 고쳐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남들보다 여유가 있으면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제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에서 주어는 '일반적인 사람

'이며, 이 경우 '어떤 사람들은'이라는 말을 첨가하면 문맥이 어색해진다.

13. [ ] 동의어 사용의 한계를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지의 예로 사용된 '한발(旱魃)-가뭄, 전신(全身)-온몸, 생명(生命)-목숨, 피부(皮膚)-살갗, 폐(肺)-허파'는 모두 동의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기>에는 용법이 제한되는 예가 들어가야 하므로 여기에 부응하는(대치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정확성이 목숨이다.'를 예로 든 ①번이 답이 된다.

14. [출제의도] 모호성을 내포한 문장에서, 불명확한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비교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와 '나'를 비교하는 것인지 '나'와 '부산에서 온 그 여학생'을 비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그'와 '그 여학생'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은 의존 명사 '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여, '웃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웃는 행위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은 접속 조사 '과'로 병렬 관계에 있는 '밤'과 '호두'를 각각 두 알씩 먹은 것인지, 두 가지를 합하여 두 알 먹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은 수식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가 친절한 것인지 '그의 누나'가 친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은 행동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가 울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아이'가 울면서 돌아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5-19]
<출전> (가)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나) 김광규, '매미가 없던 여름'
(다) 황지우, '비화하는 불새'

15. [출제의도]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며 이상적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나) 희망과 이상이 좌절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의 화자는 모두 현실을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성찰이란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핀다는 의미로 (가)와 연관 지을 수 있다. ② 이 작품 모두가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가), (나), (다) 모두 거리가 있다. ④ (가)와 (다)는 현실로부터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으나, (나)와는 거리가 있다. ⑤ (가)와 (다)는 희망적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나 (나)와는 거리가 있다.

1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작품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강물 아래로'와 '~흐른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다)는 '~ 수 없는 것', '~ 태어나지 말자고'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만 '아래로'가 '우러러 보리'로 전환되어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② (가)에서만 어두운 이미지와 밝은 이미지가 대비되어 화자의 정서를 선명히 드러낸다. ④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은 공통점을 지적한 말로 (나)의 '여름'은 현실의 안타까움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보기>는 '봄'과 '가을'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일 뿐이다.

[오답풀이] ① (나) 매미와 거미, <보기> 민중과 고을님의 관계, ④ (나) 현실을 다른 현상으로 돌려서, <보기> 직접적 묘사, ⑤ 모두 사건을 관찰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작품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불새의 전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처지와 소망을 그린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을 죽여야 하는 지옥 같은 고문의 상황 또는 절망적 상황에서 이상적인 세상 또는 자유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아침 나라'와 연관 지어 자유로운 세상으로의 부활과 연관된 말이 와야 한다.

19. [출제의도] 다른 시어와 연관지어 시어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④ '무덥고 긴'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즉, 시련, 고통과 연관된 말이다.

[오답풀이] ⑤ '날개'와 '접으며'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어로 삶에 의욕을 포기하는 모습 또는 대상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즉, '접다'는 말이 포기의 의미라면 '날개'는 삶의 의욕과 관계된 말이다.

[20-23] 고전 소설
<출전> '토끼전'

20. [출제의도] 글의 특징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전소설에는 사건의 우연성이 많이 보이지만, 지문 부분에는 우연적 요소가 나타난 곳이 없다.

[오답풀이] ② 등장인물 간의 갈등은 '간을 지키려는 토끼와 간을 빼앗으려는 용왕'으로 드러나 있다. ③ 사건 전개에 있어서 용왕과 토끼의 대화에 서술의 초점을 두고 있다. ④ 토끼와 용왕을 등장인물로 설정한 우의적 작품으로 그들의 행동과 대화는 인간 사회의 욕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두 번째 단락의 "토끼, 무단히 허욕을 내어 자라를 쫓아 왔다가 ~ 가히 이것을 보아 경계할지로다."에서 사건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다.

21.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줄거리와 연관하여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에게 간을 두고 왔다고 이야기한다. 위 글 이후에 전개될 사건을 가정해 보았을 때, 용왕이 토끼의 말을 믿지 않고 토끼의 배를 갈라보니 토끼의 간이 나왔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토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2.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심리 변화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말에 대하여 토끼는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해 한다. 그러다 한 꾀를 내어 용왕에게 말하였으나 ㉡의 말에 대하여 '토끼는 정신이 산란하여 간장이 없고 가슴이 막히어' 한다. 다시 토끼의 말과 태도에 대하여 용왕은 ㉢의 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토끼는 '이제는 내 살아날 도리 쾌(快)히 있도다.' 하고 생각한다. 여기부터 토끼가 살아날 희망이 커진다.

23. [출제의도] 글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토끼는 자신이 금수의 으뜸일 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특수하므로 간을 출입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왕이 자신의 말을 믿기를 바라고 있다.

[24-27] 언어 제재
<출전> 이운영, '사전에 없는 말'

24 [출제의도] 각 단락별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말인데 사전에 없다고 하는 것 중 대부분의 경우인 '신어', 즉 새로 생긴 말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좁은 범위의 신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유행어'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로 '웰빙'이라는 말을 들고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거명', '제대혈', '옥탑방', '방울토마토', '웰빙' 등과 같은 단어를 예로 들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6. [출제의도]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전에 등재되는 보편적인 기준은 그 단어가 얼마나 널리,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27.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어근끼리의 결합에 따른 합성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는 어근(누리)과 접사(-꾼)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파생법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꽃'이라는 어근에 '미남'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말이다. ③ '불'이라는 어근에 '닭'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말이다. ④ '답'이라는 어근에 '글'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말이다. ⑤ '바퀴'라는 어근에 '신발'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말이다.

[28-32] 예술 제재
<출전> 진중권, '가상의 파괴'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현대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형태와 색채의 해방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마지막 단락에서 의미 정보와 미적 정보의 개념을 끌어들여, 현대 회화는 형식 요소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미적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9. [출제의도] 글쓴이의 글쓰기 전략을 올바로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가)에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험과 관련지어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실제의 작품을 예로 들고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칸딘스키의 견해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 정보’와 ‘미적 정보’라는 참신한 개념을 끌어들여 글을 마무리짓고 있다. (라)에서 글쓴이가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0. [ ] 주어진 글을 읽고 타당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라)와 (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현대 회화 전체가 대상의 재현을 포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현대 회화가 대상의 재현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글쓴이의 이러한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와 연관 지어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다음의 문장을 보면, ‘예술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되어,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구별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라는 서술이 나타나는데, 이로 미루어 오브제 예술은 일상적 사물을 작품 속에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①에서도 ‘침대’라는 일상적 사물은 그대로 작품 속에 사용되고 있다.

32.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나타난 세부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1]에는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만, [그림2]에는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달리 말해 [그림1]은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중시한 반면, [그림2]는 색과 형태라는 형식 요소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을 중시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보기1>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미적 정보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되며, 미적 정보의 복잡성이란 곧 ‘형태나 색채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서 해방된 정도’를 가리킨다. [그림2]는 미적 정보를 중시한 것으로서, 엔트로피가 높은 편에 속한다. ② (나)에서 ‘대상성에서 해방되어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배열이 이루어질수록 회화는 음악을 닮아간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대상성과는 거리가 먼 [그림2]는 음악성이 강하다. ④ [그림2]와 같이 ‘재현을 포기한 그림’은 기호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33-36] 제재
<출전> 홍성태, ‘위험 사회와 도시’

33. [출제의도]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도시의 마천루는 도시화에 따른 공간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공간 부족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은 기계의 기능에 의존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익숙해진 기능에 의해 스스로 사회적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②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인공화 되기 때문에, 자연의 산물로서의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우리 자신이 인공화 될 필요가 커진다. ④ 보드리야르는 근대적 의미의 빈곤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찾았다. ⑤ 도시화는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장관의 구성 요소가 된다. 이는 우리가 현실주의의 포로가 됨을 의미한다.

34.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과 이것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강조한 글이다. (가), (나) 문단의 보드리야르, (다) 문단의 르페브르, (라) 문단의 드보르 등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본 도시의 위험성을 인용하면서 필자의 논지를 강화하였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3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지시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지시어 앞에 제시된 공간 부족, 공해 문제, 빈곤 문제, 기계화 문제 등이다. ①은 지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36. [출제의도]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산림과 농지가 도시화로 인해 파괴되고 그 결과 홍수 조절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인간에게 돌아올 자연 재해를 예시한 자료이다. (마) 문단에서 도시화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면 적절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37-41] 기술 제재
<출전> 권오병,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이해’

3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첫째 단락에, ②는 다섯째 단락에, ④는 넷째 단락에, ⑤는 마지막 단락에 제시되어 있으며, ③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내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가정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에서 내재성이 있지만 이동성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는 넷째 단락 마지막 문장 ‘이런 경우 내재성과 이동성이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해당한다.’에서 내재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글을 읽고 사례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차량용 단말기는 위성전파와 지상파를 통해 방송국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내재성이 없다.

[오답풀이] 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 이동성을, ‘지능적으로’라는 말이 내재성을 나타낸다. ②는 몸속에 칩을 심어 외부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동성과 내재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③은 신체 기관에 있는 것이므로 이동성이 있고, 타이핑과 활동 통제를 할 수 있으므로 내재성이 있다. ④는 약병과 옷은 모두 이동성이 있고, 내용을 전송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언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내재성이 있다.

40. [출제의도] 상황에 맞게 속담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는 평소에 낯익은 제 고장이나 익숙한 환경이 좋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은 나쁜 버릇은 고치기 어렵다는 뜻, ③은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 ④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나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뜻, ⑤는 사람도 의지할 데가 있어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41. [출제의도] 글을 읽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비가시성은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며 작업을 하는데 당사자는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①은 부하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 사장이 그 직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비가시성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는 사람이 아닌 사물의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다. ③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는 상황이 아니다. ④는 컴퓨터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⑤에서 가상현실의 세계는 당사자만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볼 수 없다. 전용 의복과 장갑, 헤드 세트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기기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45] 인문 제재
<출전> 마이클 그랜트,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하여’

42.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지문은 그리스·로마 신화의 성격 및 현재의 인간 생활과의 영향 관계를 서술한 글이다. 이 글에서 그리스·로마 신화가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과 ⑤는 세 번째 문단에서, ②는 두 번째 문단에서, ③은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흐름에 맞는 어휘로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일정한 범위나 한계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어휘는 ①이다.

[오답풀이] ② ‘초탈한’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난’의 뜻이고, ③ ‘초극한’은 ‘어려움 따위를 넘어 극복한’의 뜻이다. ④ ‘초연한’은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의 뜻이고, ⑤ ‘초과한’은 ‘일정한 수의 한도 따위를 넘는’의 의미이다.

44. [출제의도] 지문의 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의 ‘풍어제나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그리스·로마 신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속 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어부들은 풍어제를 통해 만선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것이며, 농민들은 기우제를 통해 하늘의 도움으로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태양계 행성에서 지구와 가까운 금성은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다. 금성의 이러한 속성을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비너스와 연결짓고 있어 적절한 예이다. ③ 큐피트는 화살을 가지고 다니며 남녀의 사랑에 맺어주는 신이다. 이러한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큐피트의 화살을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적절하다. ④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 이야기는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웅인데 이들의 이야기가 담은 작품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신화의 영향이 강한 예로 적절하다. 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제조 회사인 ‘나이키’는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에서 따온 것으로, 신화의 영향이 현재의 우리 삶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주어진 지문과 <보기>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지닌 차이점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④의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

[46-50] 현대소설

< > 현기영, '순이삼촌'

46. [ ]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에서 나는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순이삼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이삼촌과 관련된 과거를 회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이삼촌의 비극적인 삶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③ 서술자의 심리 변화보다는 순이삼촌이라는 등장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④ 일관되게 '나'가 서술자로서 서술하고 있다. ⑤ 작품 밖 서술자가 관찰한 사건을 서술하기보다는 내가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47. [출제의도] 작품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죽은 자의 희생과 살아남은 자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현실의 비극적인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의 뒷부분에 '해안지방의 축성은 과잉조치라는 게 판명된 셈이었다'는 진술에서 확인된다. ② 마을 사람들이 옴팡밭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옴팡밭 사건의 아픈 기억 때문에 순이삼촌이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고 있다는 것은 같은 날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다. 이는 옴팡밭에서 마을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줄거리 내용과 연결된다.

48.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제주도의 4·3 사건 때에 혼자 살아남은 순이삼촌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결국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작가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4·3사건을 말하고 있으며, 당시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잊혀져 가는 역사적 사건을 알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이삼촌의 삶을 통해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역사의 아픔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4·3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49.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순이삼촌은 옴팡밭에서 오누이를 잃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이 삼촌은 옴팡밭에서 겪었던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나의 집에서 일 년간 있기도 했으며, 결국 옴팡밭에서 자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답은 ④이다.

50. [출제의도] 소재의 역할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옴팡밭에 끌려 간 사람들 중에 순이삼촌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점에서 공포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옴팡밭에서 오누이를 잃었다는 점에서 한스러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순이삼촌은 그 한스러운 옴팡밭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만 결국 벗어나지못했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옴팡밭은 숙명의 공간이다. 순이삼촌에게 옴팡밭은 생계 유지의 공간이기는 하나,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공간은 아니다.

[51-55] 과학 제재

<출전> '숫자의 세계'

5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은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과 ⑤는 두 번째 문단에서, ②는 첫 번째 문단에서, ④는 세 번째 문단에서 각각의 진술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출제의도] 글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숫자를 양면성을 지닌 야누스'라고 한 것은 관념적인 존재이면서도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숫자의 양면성을 내용과 형식이라고 진술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은 첫 번째 문단에서, ②와 ③은 두 번째 문단에서, ④는 세 번째 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

53. [출제의도]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새로운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양의 개수는 총 '107'개이다. 따라서 '107'을 조건에 맞는 숫자로 표기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 <보기>의 두 번째 조건이 위치적 기수 표기법을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자릿수는 세 자리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숫자는 총 10개를 만들고 십진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므로, 각 자리는 각각 다른 숫자가 와야 한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은 자릿수는 일치하나, 첫 번째 자릿수와 세 번째 자릿수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5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의 탄생 과정'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첫 문단에서, 숫자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양을 세기 위해 막대 눈금이나 돌멩이를 대응시켰고(ㄴ), 나중에 양 한 마리나 막대 눈금 하나나 돌멩이 하나가 전부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ㄱ), 마침내 이를 기호로 표시하게 되었다(ㄷ)고 진술하고 있다.

55. [출제의도]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바빌로니아인들이 'π'를 '3.125'라고 추정하여 계산했다는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당대의 정신이나 가치관과 상관이 없다.

[오답풀이] ②에는 음양 사상이, ③에는 3 이상의 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뉴기니아 지방의 원주민의 가치관이, ④에는 '공(空)' 사상이, ⑤에는 '0'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다.

[56-60] 수필 고전 연합

<출전> (가) 한무숙, '명성'

(나) 김 립, '진일수두객(盡日垂頭客)'

56.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을 읽고 지문의 형식, 주요 내용,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 (가)는 논설적인 성격이 강한 수필이고, 글 (나)는 현실에 대한 풍자가 두드러진 한시이다. ④는 글 (가),(나) 모두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울분의 토로는 보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 고승이야기와 건축가의 집 방문에서, ②는 글 전체에서 화자가 '명성은 ~ 이다'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에서, ③은 양반의 차림새를 묘사한 부분에서, ⑤는 작품 전체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57. [출제의도] 두 작품의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 (가)의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명성'과 글 (나)의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시적 대상이 추구하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은 의미상 유사성이 있다. (가), (나)의 화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노래는, 공명과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드러난 ⑤번이다.

[오답풀이] ①은 효를, ②는 서로를 해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비판을, ③ 세월의 무상함을, ④는 의를 좇아 살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8. [출제의도] 글의 구성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이 수필은 평론적인 성격이 강한 중(重)수필로서, 글의 첫 머리에 주제(화제)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세태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④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은 '친숙한 사례'가, ②는 '논지의 확장'이, ③은 '화제의 범위 제한'이, ⑤는 '보편적 진리'가 잘못 진술된 답지이다.

59. [출제의도] 핵심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글 (가)에 나타난 명성은, 그 명성을 가진 사람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삶을 제한하는 '둘러쳐진 거울'이다. ④의 야구 선수는 명성을 얻고 외국에 진출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명성 때문에 선수 생활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명성이 인간의 삶을 제한한 예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은 명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②는 명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진술이 없고, ③은 명성 때문이 아닌 주체의 의지가 강조된 사례이며, ⑤는 명성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사례이다.

60.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장르의 두 글을 읽고 의미가 서로 통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를,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파악하는 형식으로 출제한 문제이다.

②는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글 (나)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바라보는 (가)의 화자의 입장을 파악하면 되는데 ①, ③, ④, ⑤는 (가)의 작가가 '명성'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